

KIPR

Korean Inventory of Peer Relationships

아동 · 청소년 교우관계검사

KIPR

Korean Inventory Peer Relationships
Score Report

홍상황 · 김종미 · 안이환 · 황순택 · 유현실 · 정혜원

검사자	이름	SAMPLE
검사기관	성별	
검사일	2016/10/10	생활연령 17 00 (1999/10/07)

검사 소개

본 검사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교우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우관계문제를 밝히는 데 유용한 자기보고형 검사입니다.

아동·청소년기 동안의 교우관계 경험은 이후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우관계문제의 조기진단과 문제해결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교우관계에서 부적응 및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검사는 총 64개 문항으로 개인이 교우관계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를 기술한 31개 문항과 교우관계에서 너무 정도가 지나쳐서 비롯되는 문제를 기술한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검사는 전체 T점수, 표준 T점수, 편차 T점수가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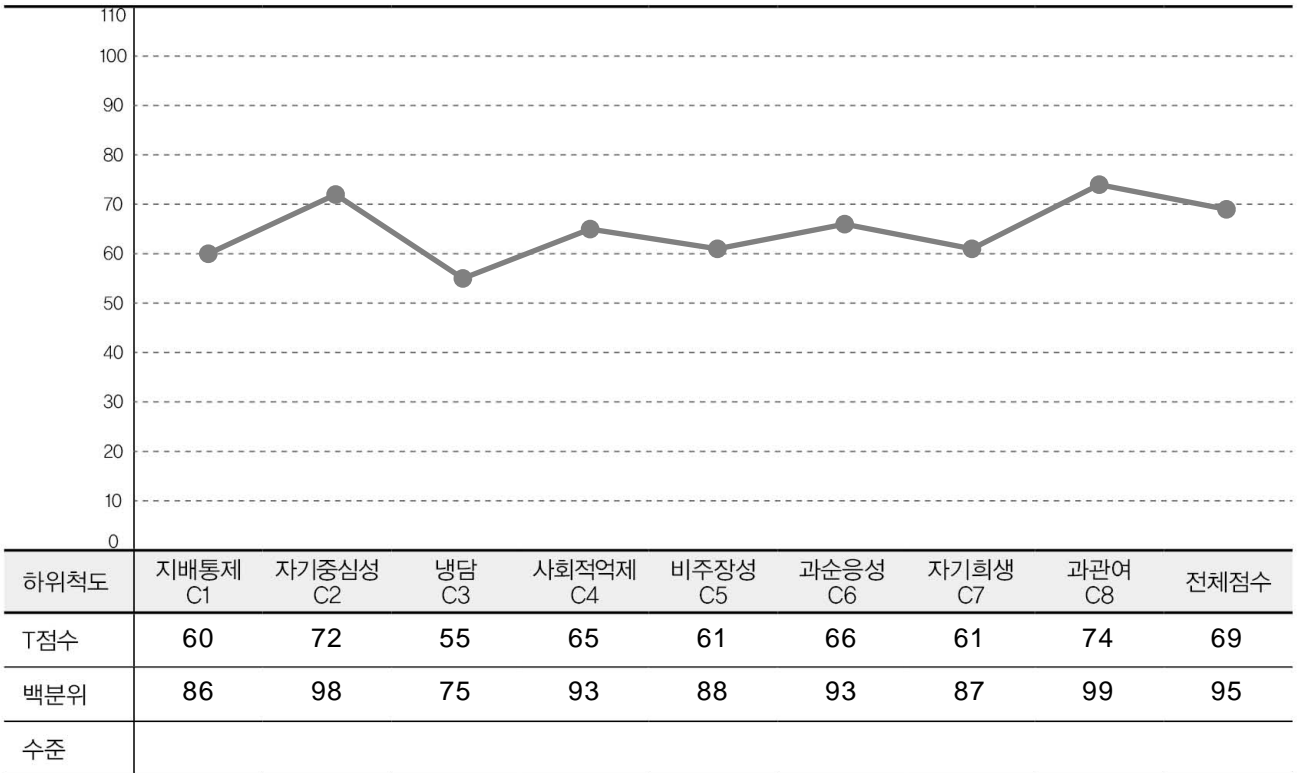
- 전체 T점수 : 개인의 전반적인 교우관계문제를 평가
- 표준 T점수 : 영역별 심각도를 나타내주며 교우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전반적인 불편감 수준을 평가
- 편차 T점수 : 표준 T점수에서 전체 T점수를 뺀 차이점수를 환산한 값으로 개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교우관계 영역 분류

점수에 따른 수준분류는 표준 T점수 기준에 따라 35점 미만은 '매우 낮음', 35이상~45점 미만은 '낮음', 45점 이상~55점 미만은 '보통', 55점 이상~65점 미만은 '높음', 65점 이상은 '매우 높음'수준으로 나타냅니다.

원형척도 원점수 프로파일

※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교우관계 문제의 전반적인 불편감 수준과 성격을 평가합니다.

단위: 표준 T점수



※ **T점수**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로 변환한 수치로, 교우관계문제 중 영역별 심각도를 나타내며 개인이 교우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전반적인 불편감 수준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 **백분위** 해당점수 미만에 놓여있는 사례의 전체 사례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점수가 백분위로 변환되었을 때, 전체 집단을 100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불편감의 상대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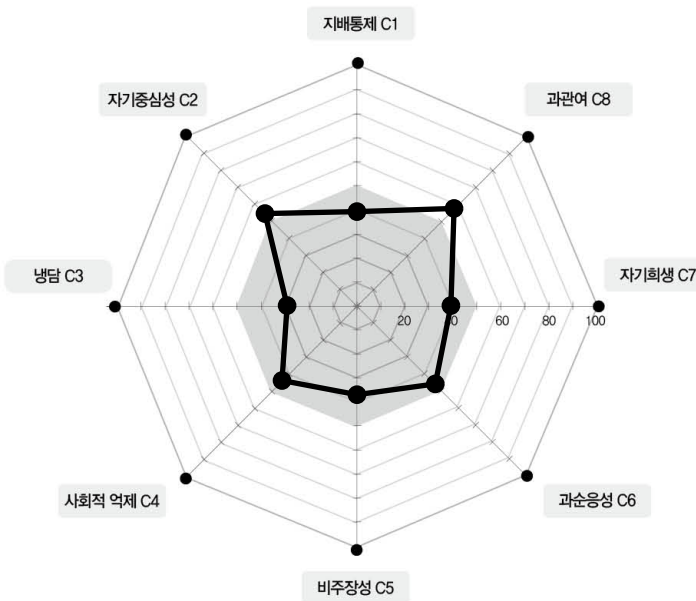
T점수	수준	해석
65점 이상	매우높음	교우관계에서 또래들에 비해 매우 큰 불편감을 경험하는 수준입니다. 교우관계에 대한 상담적 개입과 적절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55점 이상~ 65점 미만	높음	교우관계에서 또래들에 비해 다소 불편감을 경험하는 수준입니다. 학생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교우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45점 이상~ 55점 미만	보통	교우관계에서 불편을 경험하고 또 인지하지만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보통의 수준입니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평소 교우관계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35점 이상~ 45점 미만	낮음	적절한 교우관계를 통해 불편감을 또래들에 비해 적게 느끼는 수준입니다. 건강한 교우관계를 통해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점 미만	매우낮음	교우관계에서 또래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불편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는 수준입니다. 건강한 교우관계를 통해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형척도 편차 T점수 프로파일

※ 개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교우관계영역 중 특히 두드러진 영역을 나타냅니다.

차이점수 각 척도별 T점수에서 전체 T점수를 뺀 값으로, 개인이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영역 간 심각성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편차T점수 차이점수를 T점수로 환산한 값으로 전반적인 교우관계와 각 영역별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개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교우관계 영역을 찾아내는데 유용합니다.



하위척도	차이점수	편차 T점수	수준
지배통제 C1	-9	39	
자기중심성 C2	3	54	
냉담 C3	-14	29	
사회적 억제 C4	-4	44	
비주장성 C5	-8	37	
과순응성 C6	-3	46	
자기희생 C7	-8	39	
과관여 C8	5	57	

원형척도 결과해석

※ T점수가 높다는 것은 T점수가 55점 이상을 말합니다.

척도	T점수	수준	해석
지배통제 C1	60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은 교우관계에서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행동을 통해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면 위엄, 가치, 자존감 까지도 상실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통제력이 낮아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통제력에 도전하는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친구의 입장이나 관점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도하게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C2	72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은 교우관계에서 친구의 입장이나 생각을 먼저 고려하거나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선시하며, 쉽게 화를 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주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이나 무시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며 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거나 원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척도	T점수	수준	해석
냉담 C3	55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다른 친구에게 친밀감이나 애정을 느끼거나 긍정적인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의무나 관습 또는 다른 어떤 요구가 없어서 자유로울 때도 자신을 '외로운 존재'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동정심, 배려, 관용, 온정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결함이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억제 C4	65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은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집단에 참여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내성적이며 친구들에게 냉담하고,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며 비사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상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며 우울하고 수줍어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흔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친한 친구나 단짝도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비주장성 C5	61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비(非)주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을 꺼리며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친구에게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안정된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비난이나 부정적 평가를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가능한 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존적인 성격일 경우 전형적으로 이 척도와 과순응척도가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순응성 C6	66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은 친절하고 순응적이며, 공손하고 관대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실수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논쟁을 벌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일탈되는 행동은 피하고자 합니다. 다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당할 수 있고 다른 친구의 적대감이나 원한을 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느끼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공격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주장하면 상대가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자기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희생 C7	61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은 친구들과 정서적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고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흔쾌히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나 관심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쓰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관여 C8	74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은 자신이 불임성이 있고 개방적이고 사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강한 결속을 요구하고 항상 친구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칠 정도로 친구들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해결에 과도한 책임의식을 느끼며, 자신의 사적인 일들을 개방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견